



2월 2주차 |

주간 인도네시아

시장 동향 및 이슈





주간 이머징 증시 동향

구분	주가지수	25	1.29	전주대비(%)	전년말대비(%)	1년 최저치	1년 최고치
베트남	VN	1,126.91	1,056.61	↑ 6.65	↑ 2.09	659.21 '20/03/24	1,194.20 '21/01/15
인니	자카르타종합	6,151.73	5,862.35	↑ 4.94	↑ 2.89	3,937.63 '20/03/24	6,435.21 '21/01/13
인도	SENSEX	50,731.63	46,285.77	↑ 9.61	↑ 6.24	25,981.24 '20/03/23	50,731.63 '21/02/05
중국	상해종합	3,496.33	3,483.07	↑ 0.38	↑ 0.67	2,660.17 '20/03/23	3,624.24 '21/01/25
	심천종합	2,332.53	2,335.05	↓ -0.11	↑ 0.14	1,631.88 '20/03/23	2,462.85 '21/01/25
홍콩	H	11,561.32	11,208.78	↑ 3.15	↑ 7.66	8,559.64 '20/03/19	11,960.49 '21/01/25
	항셱	29,288.68	28,283.71	↑ 3.55	↑ 7.56	21,696.13 '20/03/23	30,159.01 '21/01/25
한국	KOSPI	3,120.63	2,976.21	↑ 4.85	↑ 8.60	1,457.64 '20/03/19	3,208.99 '21/01/25



주간 이머징 국채 금리(10Y) 동향

구분	25	1.29	전주대비(bp)	전년말대비(bp)	1년 최저치	1년 최고치
베트남	2.27	2.33	↓ -5.20	↓ -30.50	2.20 '21/01/15	3.60 '20/02/05
인도네시아	6.16	6.21	↓ -4.80	↑ 27.30	5.89 '20/12/30	8.38 '20/03/24
인도	6.07	5.91	↑ 16.50	↑ 20.60	5.75 '20/05/28	6.51 '20/02/05
중국	3.22	3.19	↑ 3.60	↑ 7.50	2.48 '20/04/08	3.36 '20/11/19
한국	1.78	1.77	↑ 1.70	↑ 6.00	1.26 '20/03/09	1.79 '21/02/01



주간 이머징 환율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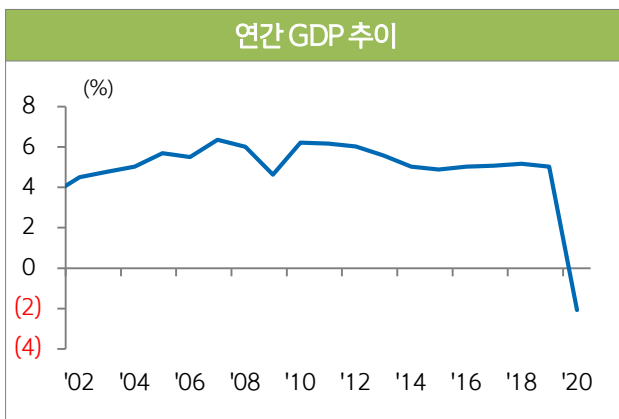
구분	25	1.29	전주대비(%)	전년말대비(%)	1년 최저치	1년 최고치
달러-동 (VND)	22,999.00	23,049.00	↓ -0.22	↓ -0.43	22,999.00 '21/02/05	23,637.00 '20/03/30
달러-루피아 (IDR)	14,030.00	14,030.00	↓ 0.00	↓ -0.14	13,635.00 '20/02/06	16,575.00 '20/03/23
달러-루피 (INR)	72.93	72.95	↓ -0.03	↓ -0.19	71.20 '20/02/06	76.87 '20/04/16
달러-위안 (CNY)	6.47	6.43	↑ 0.58	↓ -0.94	6.43 '21/01/29	7.17 '20/05/27
달러-원 (KRW)	1,123.81	1,118.60	↑ 0.47	↑ 3.43	1,081.81 '20/12/04	1,285.73 '20/03/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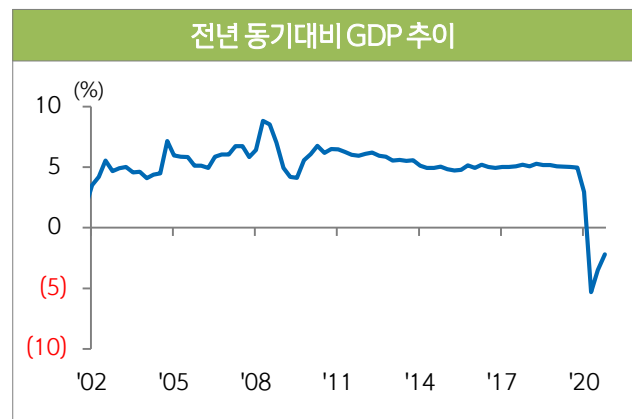
인도네시아 경제 및 금융시장 이슈

❖ 인도네시아 4분기 성장률 소폭 반등했지만 연간 마이너스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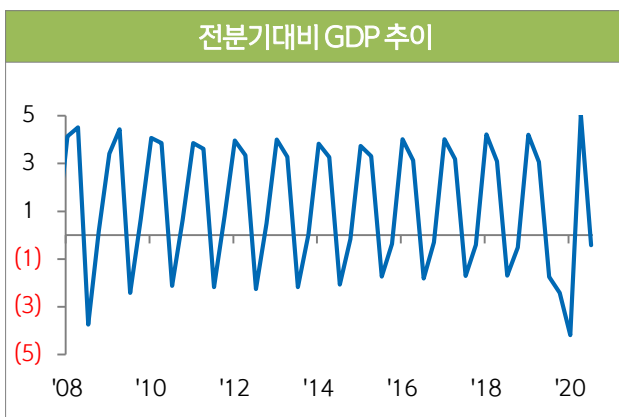
- ▶ 인도네시아의 4분기 GDP 성장률은 전년대비 -2.19%, 전분기 대비 연율 -0.42%를 기록하였음. 2분기 전년대비 -5.32%, 3분기 -3.49%에 비해 전년대비 성장률의 마이너스 폭이 줄어들면서 코로나19의 충격이 다소 완화되었지만 **3분기 연속 전년대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면서 연간으로는 -2.07%의 성장을 하여 1998년 동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첫 연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음**
- ▶ 부문별 성장률을 보면 인도네시아 경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4분기 민간소비는 전년대비 -3.61%를 기록하였으며, 민간투자는 -6.15%를 기록한 반면 정부지출이 전년대비 +1.76%를 기록하였음. 인도네시아의 **코로나19 확진세가 지난 4분기에도 꺾이지 않으면서 핵심 경제 지역인 자카르타를 중심으로 재차 대규모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었고 이로 인해 민간 부문의 소비 및 투자 활동이 제약된 것이 4분기에도 성장률 부진을 초래한 것으로 판단됨**
- ▶ 코로나19 확진자수가 여전히 1일 1만명대를 넘어선 흐름이 지속되고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1월까지 진행되면서 1분기에도 성장률 둔화는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됨. 다만, 인도네시아는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고령자보다 생산 가능 연령대의 인구에 집중적으로 백신 접종을 실시하는 조치를 통해 최대한 빠르게 경제를 정상화한다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대통령이 가장 먼저 중국의 시노백 백신을 맞는 모습을 공개하면서 빠른 접종 확대를 권고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됨. **1분기까지는 전년대비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나 기저효과 등을 감안할 때 2분기부터는 전년대비 + 성장으로의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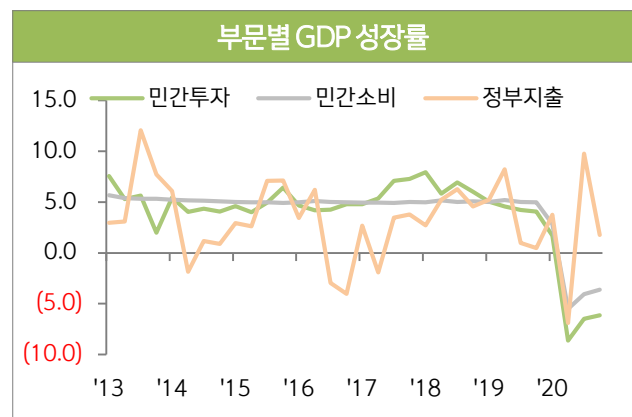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주요 뉴스





조코위 대통령, 샤리아 인도네시아 은행 승인하며 빠르게 성장 중이라고 평가



❖ 요약 및 시사점

조코위 대통령은 3개 국영은행의 자회사인 샤리아(이슬람 금융) 은행들을 합병하여서 대형화된 샤리아 은행을 승인하였음. 은행의 대형화를 통해 대형 투자 및 개발 사업을 위한 자금 지원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인도네시아 증시에도 강한 상승을 가져왔음

- ▶ 조코위 대통령이 BRI 샤리아 은행, Mandiri 샤리아 은행, BNI 샤리아 은행을 통합한 샤리아 인도네시아 은행(Bank Syariah Indonesia) 은행을 승인하였음. 통합 샤리아 인도네시아 은행의 자산 규모는 214조 루피아이며 핵심 자본은 20.4조 루피아 규모임.
- ▶ 이러한 통합 샤리아 인도네시아 은행의 출범에 따른 기대감으로 인도네시아 증시도 큰 폭의 상승을 보였음. 각각의 국영 은행들의 자회사로 있던 3개의 샤리아 은행들을 통합함으로써 인도네시아 국내 산업계의 개발에 있어서 충분한 자본을 지원해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시장에 반영된 것임.
- ▶ 통합 샤리아 인도네시아 은행의 샤리아 경제 및 금융 내에서의 규모는 10위 안에 드는 수준이라고 중앙은행 총재는 추산하고 있음
- ▶ 조코위 대통령은 통합 샤리아 인도네시아 은행에 대한 승인을 진행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시기에 전통은행보다 이슬람 은행(샤리아 은행)의 성장이 더욱 빠를 것이라고 전망하였음.
- ▶ 코로나19 기간 중에 이슬람 은행 산업은 전년대비 10.9% 확대되었는데, 이것은 전통 은행 산업이 7.7% 성장하는 것보다 빠른 성장세였다고 대통령은 말하였음. 예금 증가로만 봤을 때도 이슬람 은행은 11.56%의 증가를 기록한 반면, 전통은행은 11.49%의 증가를 기록하였음. 한편, 자금조달 측면에서는 이슬람 은행 산업이 9.42% 증가한 반면, 전통 은행 산업은 0.55% 성장에 불과하였음.
- ▶ 이러한 성장 데이터를 기반으로 대통령은 인도네시아의 이슬람 경제가 급속 성장을 지속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드러냈음. 그러면서도 인도네시아 국내의 샤리아 경제를 활성화 시킴으로써 인도네시아가 세계 및 지역 내 샤리아 경제 허브가 될 수 있도록 더욱 키워나가야 한다고 당부하였음. "2018년에 인도네시아는 전세계 샤리아 경제권에서 10등을 기록하였고, 2019년에는 5위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4위가 되었습니다."라고 하였음.



2020년 12월 해외 여행객 증가



❖ 요약 및 시사점

인도네시아 여행산업은 1년 내내 코로나19 영향으로 부진하였음. 그나마 12월에는 국제회의를 위한 방문 등이 늘어나면서 방문객수가 반등하였지만, 여전히 전년대비 큰 폭의 부진이 지속되고 있음.

관광산업은 자국 내 방역의 완료 뿐만 아니라 유입객에 대한 통제까지 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완전한 회복까지 장기간 소요

- 2020년 12월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인도네시아 국내로 들어오는 폭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서 164만명을 기록하였다고 집계되었음. 대부분의 관광객들은 휴양 관광객보다는 사업 목적이나 선교 목적의 방문 등이었음. 2020년 12월의 외국인 여행객 유입은 11월 대비 13.58% 증가하면서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2019년 12월 대비로는 88.08% 줄어든 것이라고 통계청장은 발표하였음.
- 방문객수의 대부분은 발리 지역으로 온 것으로 파악되며, 국제회의 등에 참석하기 위해 방문한 것이라고 파악되었음. 공항으로의 입국이 상당부분 차단되면서 외국인 방문객 숫자는 59%가 육상 입국, 27%가 해상입국, 14%만 항공 입국을 이용하였음.
-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여행산업 및 유관산업에 지속적으로 충격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은 인도네시아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방역 조치를 낮추기 어려운 모든 국가들에서 공통된 현상이라고 분석하였음.



디지털 전환이 중소기업과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윈윈 전략



❖ 요약 및 시사점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었지만, 인도네시아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를 계기로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하면서 새로운 매출 및 사업 편의의 기회를 경험하게 되었음. 이러한 디지털 전환이 중소기업 및 전자상거래 플랫폼 모두에게 상호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정부도 지원을 지속하고 있음

- 코로나19로 인해서 소매상들이 운영하는 개인 상점들은 큰 어려움을 겪었음.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오프라인에서 과일 튀김류를 판매하던 Wjy Wijaya 씨는 Gojek의 식품 배달 서비스 브랜드인 GoFood의 음식료 중소기업 성장 지원 프로그램인 Digitalasa를 이용해 보기로 하였으며, 그 결과 일부 운영 비용이 절감되고 창의적인 그녀의 상품을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팔게 되면서 더 많은 주문을 받을 수 있게 되었음. 그녀는 이러한 사례를 Jakarta Post가 개최한 세미나에서 발표하면서 코로나19 이후의 세상에서는 인도네시아 중소기업들에게 이러한 디지털화의 기회가 있다고 강조하였음.
- Jakarta Post와 Gojek은 공동으로 웹세미나를 기획하면서 Wjy 씨외에도 여러 소규모의 사업자들이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극복에 디지털화를 활용하였는 지를 공유하였음. 코로나19의 부정적 영향에도 불구하고 많은 인도네시아 중소기업들이 디지털 전환을 선택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음.
- 한 연구 결과에서는 인도네시아 15개 주에서 1,180여 중소기업들을 조사하였는데 이들 중 44%가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온라인 마켓 플레이스나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이용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음
- 중소기업부의 지원을 받아 중소기업 훈련 기관을 운영하는 Leonard Thesabrata 씨에 따르면 정부가 3가지 핵심 역량 구축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음. “첫번째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두번째는 더 큰 규모의 산업을 구축하고 해외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공급망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세번째는 많은 인도네시아 중소기업들이 아직 충분히 구축하지 못 한 데이터를 모아들이는 것입니다.”라고 하였음.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910만 중소기업들에 대해서 240만 루피아(161달러) 씩의 지원과 인큐베이션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음.
- Gojek은 중소기업들이 그들의 마케팅에서부터 주문 및 배송, 지불 관리까지의 모든 사업 과정을 Gojek이 제공하는 슈퍼앱을 통해서 제공하고 있음. 거기에 중소기업들이 Gojek에서 판매 파트너로서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인큐베이션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음. 이에 힘입어서 코로나19 동안에 많은 중소기업들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경험하고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발표하였음.
- 인도네시아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많은 개인 소비자들이 온라인 음식 배달 서비스를 이용해봤거나(97%), 온라인 배송서비스를 이용해 본(76%) 것으로 조사되었음.

(뒷면 계속)

- BLP Beauty의 대표인 Monica Christa는 전통적 방식의 지불 방식에서 디지털 결제 방식으로 전환한 것이 그의 화장품 회사의 운영 효율성을 높여주면서 직원들의 전반적인 스트레스도 줄여줬다고 말하였음. “2016년에 브랜드를 런칭했을 때, 저희 웹사이트는 예상보다 높은 트래픽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는 당시에 전통적 지불방식으로 운영했었는데 그러다 보니 엄청난 혼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2017년에 지불 방식을 디지털화한 이후에 다시 런칭하면서는 하루에 4천 개의 주문을 쉽게 처리할 수 있게 되었고 웹이 아닌 앱에서의 접근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전에는 2~3일 동안 200개 주문을 처리하는 수준이었는데 말입니다.”라고 그녀는 말하였음.





인니 정부, 2021년에 경제 회복 흐름 지속될 것으로 평가



❖ 요약 및 시사점

인도네시아 재무부에서는 '20년 4분기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였지만 이전대비 하락폭을 줄이면서 회복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정부의 공격적인 재정 지출을 마중물로 하여 민간의 소비와 투자가 살아난다면 코로나 이전의 5%대 성장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함

- 재무부는 4분기 성장률 하락폭 감소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여러 지표를 볼 때 이러한 개선 흐름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음. 2020년 12월의 PMI가 51.3을 기록한 것에 이어 21년 1월에는 52.2를 기록하면서 더 개선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수치는 지난 6년간 동안에 가장 높은 수준 범위에 있는 것이라고 재무부에서는 평가하였음. 그러면서 올해 성장률 수준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5%대 성장을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하였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의 진행상황과 백신 접종의 진행에 따라 성장 회복의 불확실성은 존재한다고 평가하였음. 일단 경제 회복 흐름은 정상적인 궤도를 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백신 접종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회복 성과도 더 빨라질 수 있는 상방 불확실성도 존재한다고 보았음.
- 재정 정책을 공격적으로 집행하면서 경기 하강을 막기 위한 재정 정책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성장을 받쳐주면서 2021년에는 국가 경제 회복 프로그램과 함께 민간 부문에서도 민간 소비와 산업 부문의 투자 재개, 특히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반등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하였음.



의회, 2021년에는 재생에너지 법안 통과 희망



❖ 요약 및 시사점

인도네시아는 현재 석탄 발전 의존도가 높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2025년 23% 신재생에너지 사용비율을 맞추기 위해 관련 법안을 올해부터 논의하여 연내에 통과시키기를 희망하고 있음.

태양광, 지열 등 인도네시아의 자연환경은 재생에너지 확보에 유리한 환경임

- Soeparmo 의회 부의장은 신재생에너지 법안이 올해는 목표한 대로 통과되길 희망하며 2021년 6월에는 첫번째 논의를 진행한다는 목표대로 진행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하였음. 해당 법안은 인도네시아에서 환경을 보전하면서 에너지 확보를 늘리는 에너지 믹스에서의 친환경 에너지 비중 확대를 내용으로 담고 있음.
- 이에 더해, 인도네시아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의 사용 비율을 2020년 11%에서 2025년에는 23%까지 늘린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음. 부의장은 앞으로 볼 때 인도네시아가 더 이상 화석 연료에 의존하면 안되며, 화석 연료는 환경에 피해를 주고 매장량도 고갈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하였음.
- 부의장은 인도네시아가 가지고 있는 자연 환경이 신재생에너지를 확보하기에 유리한 환경이라면서 이를 통해 환경을 보전하면서 에너지 확보를 늘릴 수 있다고 말하였음.



인도네시아, 전기차로의 전환 착실하게 진행 중



❖ 요약 및 시사점

인도네시아는 정부 차원에서 보유한 자원의 고부가가치화를 이루면서 파리기후협약에서 약속한 탄소배출 절감, 그리고 심각한 대기 오염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으로 전기차로의 전환을 진행하고 있음. 자카르타 일대에서 향후 5년 내 전기버스로 전부 전환하는 계획을 포함하여 지속적으로 전기차로의 전환을 진행중에 있음

- 인도네시아는 2019년 하반기에 조코위 대통령이 대중 교통 수단과 민간 사용에 있어 전기 차량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관련 법령을 정비한 이후에 전기차로의 이전 과정을 거치고 있음. 발리의 경우 2019년에 전기 버스를 도입하는 것으로 법령을 세우면서 가장 먼저 움직이는 지방 행정부가 되었음. 자카르타는 2020년에 이를 따르고 있으며, 현재는 아체 지역, 그리고 향후에는 솔로 지역 등등에서 시범 운영을 계획하고 있음. 인도네시아 대학에 따르면 대중 교통의 70%가 넘는 기업들이 전기차로의 전환 의사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자카르타는 세계에서 가장 대기 오염이 심한 도시 중 하나로써의 명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기차로의 전환에 나선 지방 중 하나임. 자카르타에 기반을 둔 민간 택시업체인 Blue Bird는 테슬라 차량을 전기차 택시용으로 몇 대를 채용하였음.
- 정부가 운영하는 대중 교통 기업인 Transjakarta의 경우에는 7년 내로 전부 전기에 기반한 버스로 이전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대부분의 도입 비용은 자카르타 행정부로부터 보전을 받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보니 전환 속도는 천천히 이뤄지고 있는 상황임.
- Bakrie Autoparts는 이러한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1975년에 세워진 이 차량 부품 기업은 미쓰비시나 이쓰즈와 같은 회사에 차량 철강제품을 납품하고 있는 회사임. 그러나 현재는 Transjakarta에 전기 버스를 납품하면서 재생에너지 차량 시장에 진입하였음. Bakrie의 CEO는 이러한 전환을 통해서 대규모의 이익을 얻는다고 보다는 새로운 시장으로 진입하는 기회를 잡는 것이 최우선 방향이라고 인터뷰하였음. 그는 전세계에 100만여대의 전기버스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지만 95%는 중국에서 운영되고 있다고 말하였음. Bakrie는 재생에너지 차량 산업에 진입하기 위해서 전기버스용 차량 몸체와 인테리어, 시트 및 각종 내장재들을 생산하기 시작하였지만 아직까지 핵심인 배터리 및 관리 시스템과 같은 부분은 중국의 BYD로부터 수입하고 있음. Bakrie가 이러한 전환에 나서게 된 배경에는 향후에는 전기차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화석연료 차량 시장에서 점유율을 잃게 될 것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임. 지난해 Bakrie는 BYD로부터 최소 2대의 전기 버스를 수입하여서 시범 운영 및 Transjakarta의 서비스에 참여하였음.

(출처 : Antara News)

- 인도네시아는 파리 기후협약에 2016년 가입하였으며 2025년까지 모든 운송수단에 대해서 23%는 신재생에너지로 운영하는 방향에 동의하였음. 이러한 조약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전기 버스의 전환은 필수적인 상황임.
- Transjakarta가 2026~2027년까지 전부 전기버스로 전환하는 것은 이에 발맞춘 행동이며, 결과적으로 14,000여 대에 가까운 버스가 전기버스로 변경되는 것임. 전기차량으로 전환하게 되면 고질적인 문제였던 대기 오염 문제의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음.
- 인도네시아 및 세계 각국은 전기차량으로의 전환을 진행하고 있음. 전기차량으로의 전환은 동력기관부터 기존의 엔진과 다르게 설계 되어야 함.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도 에너지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도 충족해야 하는 상황임.
- 현재의 전기차의 단점들은 짧은 운영거리와 긴 충전시간 등이었지만 점차 문제가 해소되고 있음. 이제 나오는 전기차들은 일반적인 내연기관차가 운행하는 거리 수준을 다닐 수 있으며, 과거보다 더 빠르게 충전이 가능해진 상황임
- 각국 정부는 전기차의 사용 증대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보조금 지급과 정부가 지원하는 인프라 구축 등의 역할이 이뤄지고 있음. 노르웨이의 경우를 예로 들면 새로 만들어지는 차량의 60% 가량이 전기차로 나오고 있으며 전기차에는 보조금이 지급되지만 내연기관 차에는 벌금이 매겨지는 방식으로 비용을 완화하고 있다고 분석되고 있음.
- 인도네시아에서의 전기차 및 관련 산업의 성장은 이를 지원하려는 정부의 정책에 매우 크게 좌우될 것이며 이러한 산업 지원이 바탕이 된다면 인도네시아가 전기차 관련 공급망을 국내에서 확장시키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음.
- 인도네시아는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인 리튬 생산은 적지만 니켈이나 코발트와 같은 광물은 충분히 매장되어 있음. 이러한 자원의 가치만 90조 달러에 이르며, 일단 가공이 되면 부가가치는 기본 자원 가격의 5배에 이를 것이라고 분석되고 있음. 그래서 인도네시아는 전기차에 대해 적극적일 수 밖에 없음. 성장률도 2025년까지 12%, 2030년에는 23%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서 이를 통해 외화 수입에도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보고 있음.
- 전기차의 보급과 관련하여 업계에서는 정부에 전기차 충전과 관련한 인프라의 구축에 대해서도 요구하고 있음. 현재 자바와 발리는 전기차 버스를 심야 동안 충전할 수 있는 충분한 잉여 전력을 구축하고 있다고 Bakrie의 CEO는 말하였음. 일단 현재는 한번 충전하면 400km 정도를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전기 버스는 최소 하루에 한번은 충전을 해야되는 상황임. 이를 위해서는 차고지에 충분한 충전 설비가 마련되어야 되는 것임
- 코로나 19로 인해서 전기차 생산 및 전환이 늦어지는 영향을 받았지만 점차 재개되고 있는 상황임. 2020년에는 자카르타에서 인도 받기로 한 전기차량 물량에 대해서 정부가 전부 구매를 하지 못 하였지만 회복 과정에서 다시 살아나고 있는 상황임. Bakrie는 향후 10년간 장기에 걸쳐 매우 큰 계획을 가지고 전기 버스 생산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차량을 수입하는 것이 아닌 인도네시아 내에서 전기 버스를 조립 생산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투자하고 있음.
- 인도네시아는 빠르면 향후 10~15년 내로 장거리 운송 트럭 등 상용차량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전기차로 이전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임.

(출처 : Jakarta Globe)



테슬라의 인도네시아 배터리 공장 투자 구상 구체화



❖ 요약 및 시사점

인도네시아의 전기차 중심지 계획에 맞춰 CATL, LG화학에 이어 테슬라도 구체적인 투자 제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인도네시아 정부가 발표하였음. 전기차량의 조립 공장 보다는 전기차 배터리 생산과 관련한 제련에서 배터리 생산까지의 공급망이 인도네시아에 갖춰져가는 방향임

-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 전기차 시총 기업인 테슬라가 전기차용 배터리 공장 및 ESS 시스템을 건설하는 것과 관련한 제안을 제출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인도네시아가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핵심 국가가 되고자 하는 계획이 구체화되고 있다고 하였음.
- 테슬라의 제안은 원광석 가공과 배터리 투자 등의 내용을 포함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올해 인도네시아가 추진하고 있는 연간 투자 유치 목표 640억 달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임.
- Luhut Panjaitan 해양 및 투자조정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테슬라와 좋은 협상을 진행하였다고 말하였음. 6번의 화상 회의를 진행한 이후에 테슬라로부터 제안을 받을 걸로 예상되고 있다고 장관은 말하였음.
- 조코위 대통령은 인도네시아의 풍부한 니켈 매장량에 기반하여 인도네시아의 차량용 배터리 제조 산업을 키우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내각 구성원들에게 투자 유치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임. 이를 위해서 Asahan Aluminium(Mind ID), Aneka Tambang, 그리고 Pertamina, Perusahaan Listrik Negara(PLN) 등이 공동 출자하여 Indonesia Baterai를 20년 10월에 설립하였으며 Indonesia Baterai가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 및 배급을 맡도록 하였음.
- 중국계 배터리 회사인 CATL, 대한민국 LG화학 등도 인도네시아와 배터리 생산을 위한 투자를 진행하겠다고 발표하였음. BKPM은 LG화학이 중부 자바지역의 Batang 산업단지에 토지를 확보하기 위한 예약을 해두었다고 발표하였음. 이러한 내용들이 이어지면서 인도네시아 증권거래소에서 니켈 생산기업들의 주가도 크게 상승하였음.
- 테슬라, CATL, LG화학 이외에도 프리포트 인도네시아도 인도네시아에 배터리 관련 공장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프리포트는 중국 철강 기업인 Tshingshan Steel과 Weda Bay에 구리 제련소를 28억 달러 규모로 건설한다는 계약을 마무리하였음. Weda Bay 산업 단지에는 니켈 제련과 관련한 기업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해당 지역에서 구리 제련소를 완료하게 되면 배터리용 구리 니켈의 생산 수급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출처 : Jakarta Globe)



Tsingshan, 프리포트의 28억 달러 규모 구리 제련소 건설에 투자



❖ 요약 및 시사점

인도네시아 정부의 주도로 Weda Bay 산단에 구리 제련소를 건설하는 프로젝트가 진행중인 가운데 관련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던 부분에 대해 중국 Tsingshan 측에서 더 많은 자금 조달에 참여할 것이라고 발표되었음. 3월말 이전에 최종 협상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지만 인도네시아 제련사업에 중국 자본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음

- 프리포트 맥모란은 인도네시아 Weda Bay에 중국의 Tsingshan Holding 그룹과 함께 건설하는 28억 달러 규모의 구리 제련소 건설과 관련하여 7.5% 정도만 조달하는 방향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고위 담당자가 말하였음. 인도네시아는 지난 수요일(2/3)에 Tsingshan과 프리포트가 28억 달러 규모 거래에 가까워졌다고 발표하였음. 해당 제련소가 건설되면 구리 파이프와 전선 등 100억 달러 규모의 제품을 생산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고위 장관이 정확한 일정은 생략한 채로 말하였음.
- 협상은 3월 말 정도에는 확정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광업 투자 담당자가 말하면서 대부분의 자금 조달은 Tsingshan을 통해 이뤄지며 프리포트의 투자 참여 비율은 7.5% 수준이 될 것 같다고 그는 말하였음. 해당 제련소가 완공되면 구리 컨센트레이트의 처리 용량은 240만 톤에 이를 예정임
- Tsingshan은 아직까지 즉각적인 답을 하고 있지는 않으며 여전히 논의 중이라는 답변만 주었음.
- 지난해 6월에 인도네시아 해양 및 투자 조정 장관은 프리포트에게 Weda Bay 제련소 건설을 요청하였으며 해당 산업 단지에 구리를 포함한 종합 제련 단지를 건설하기를 희망한다고 하였었음.

(출처 : Reuter)